

# 남원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 전 시민 1인당 20만원 설 명절 전 지급 추진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서민 경기 체감 악화 속에 시민들의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긴급대책으로 전 시민에게 1인당 2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설 명절 전에 지급한다는 방침을 6일 밝혔다.

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민생 최우선'이라는 시정방침 실현을 위해 서민 경제의 체감 온도가 급격히 떨어붙은 상황에서 시민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긴급대책 일환에서 마련됐다.

특히 이번 결정은 인근 군 지역의 농촌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연합회 등 각계각층에서 제기된 민생안정 요구를 시가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또한 이번 150억원의 민생안정지원금 재원은 남원시가 '2026년도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세출 효율화' 부문 89억원의 인센티브를 포함 135억원의 지방교부세 추가 확보와 예산 절감 등을 통해 마련해 더욱 남다른 의미가 있다.

이에 남원시는 시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관련 조례 발의와 2026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을 신속히 마무리 해 오는 설 명절 전까지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앞서 남원시는 유례없는 국가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대폭 감소로 남원시 재정 여건이 날로 악화되는 가운데, 매년 높아지는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도 패널리티의 악순환을 돌파하기 위해 보조금 혁신, 이월액·불용액 최

소화 등 6개 평가 항목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89억원의 세출 효율화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이와 더불어 보통교부세 최대 확보를 위해 산정 근거가 되는 기초통계자료 95종을 정비하는 동시에 지속해서 행정수요를 발굴해 왔으며, 행정안전부를 수시로 방문해 남원의 재정수요와 교부세 확대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135억원의 지방교부세를 추가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안순엽 기획조정실장은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보통교부세 세출 효율화 인센티브 등 지방교부세 135억원의 추가 확보한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민생안정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해 민생 안정과 소상공인 매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에 온기가 퍼질 수 있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제12회 지리산 남원 바래봉 눈썰매 축제 개최

남원시 운봉에항회(회장 신동열)가 1월 3일부터 오는 2월 18일까지 47일간, 겨울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제12회 지리산 남원 바래봉 눈썰매 축제를 남원 허브밸리 및 바래봉 일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눈썰매장을 중심으로 겨울을 대표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도록 마련, 지리산 고원분지에 위치한 허브밸리 눈썰매장은 하얀 설경이 어우러져 겨울 분위기를 한층 더해 주고 있다.

눈썰매장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되며, 어린이는 물론 동심을 느끼고 싶은 어른들까지 모두가 함께 겨울 레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운봉에항회가 직접 운영하는 먹거리 공간을 마련해 관광객들의 즐거움을 더하고 있다.

한편, 승용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을



남원시 운봉에항회가 1월 3일부터 오는 2월 18일까지 겨울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제12회 지리산 남원 바래봉 눈썰매 축제를 남원 허브밸리 및 바래봉 일원에서 개최한다.

위해 지리산 허브밸리 내 700여대의 무료 주차장이 마련이 되고, 입장료 (10,000원)만으로 눈썰매, 얼음썰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며,

남원시민 및 어린이(만 3세~6세미만)는 8,000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6,000원, 운봉 주민 및 만 3세 미만은 무료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 순창군,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 본격 추진

순창군이 농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주거 취약계층과 지역 정착 인구를 위한 공간으로 재생하는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방치된 농촌 빈집을 리모델링해 주거 공간 또는 문화공동체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농촌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에는 총 3억 3천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순창군은 이를 통해 모두 11동의 빈집을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빈집을 소유한 주민은 동당 최대 3천만 원까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공사가 완료된 이후 해당 주택을 입주자에게 4년간 무상 임대해야 한다.

지원 대상 빈집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1년 이상 방치된 주택이거나 6개월 이상 사용되지 않은 단독주택이다.

리모델링을 마친 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귀농 귀촌인 청년 신혼부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4년 동안 무상으로 임대된다.

사업 신청은 이달 6일부터 오는 27일까지 4주간 진행되며 신청자 가운데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 민선 8기 공약 완료율 84.8%

순창군, 5개 분야 79개 공약 중 67개 사업 완료 · 12개 사업 추진

순창군(군수 최영일(사진))이 민선 8기 마무리를 앞두고 2025년 말 기준 공약 완료율 84.8%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수준의 공약 이행 성과를 내고 있다.

군에 따르면 전체 5개 분야 79개 공약 가운데 67개 사업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12개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체 공약 평균 추진율은 94.6%에 달해 대부분의 사업이 계획대로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지난해 4분기에는 구립 유아종합학습분원 건립과 순창읍 주변 동산정원 조성 순창 원도심 재생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12개 사업이 완료 단계로 전환됐다.

이 가운데 농민 기본소득 지원 확대 사업은 2025년도 200만 원 지급을 달성하며 대표적인 공약 완료 성과로 꼽

힌다.

현재 추진 중인 나머지 공약들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어 민선 8기 종료 이후에도 연속성 있는 사업 마무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주민과의 약속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온 순창군의 공약 추진 체계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최근 실시한 2025년 순창군 사회조사에서도 행정 운영 전반에 대한 군민 만족도가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나 공약 이행 성과가 군정 전반에 대한 신뢰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군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공약이행평가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으며 3년 연속 SA등급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민선 8기 동안 군민과 약속한 공약을 많이 아닌 성과로 증명하는 데 행정역량을 집중해왔다"며 "앞으로도 남은 공약을 책임 있게 마무리해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시, 창업 활성화 도모 '청년상인 2차' 모집

남원시가 '공한투원 중심 상권활성화 거점센터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청년상인 2차 모집에 나섰다.

이번 모집은 지난 1차 모집에 이어 더 많은 청년 창업가들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관한투원 인근 경외상가의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 모집 기간은 7일 오후 6시까지이며, 서류 접수를 통해 약 30명 내외의 청년 창업가를 선발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으로, 외식 등 사업 아이템을 보유하고 실제 사업 운영이 가능한 개인 또는 기업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이 사업은 단순히 점포 입점을 지원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단계별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청년 창업가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특징이며, 신청자는 서류평가를 시작으로 사업설명회와 면접, 그리고 트랙별 교육 및 컨설팅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 과정에서 교육 참여율과 사업성, 창업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선발자를 결정한다.

선정된 청년상인에게는 사업설명회와 사업계획서 컨설팅을 비롯해 실전 교육, 전문가 컨설팅, 선진지 견학 등의 기회가 제공된다. 또한 입점이 확정될 경우에는 설비비 일부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이메일 접수로 진행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 임실군산림조합, 2025년 사방사업 시공평가 '전북 1위'

임실군산림조합(조합장 정희석)이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2025년 사방사업 시공평가'에서 산림조합 부문 1위는 물론, 전체 시공 대상지 중 종합 1위를 차지하며 최고의 시공 역량을 입증했다.

임실군산림조합이 시공한 임실군 성수면 왕봉리 산2-5 유역관리 사업지는 산사태 및 토석류 예방을 위한 조기

추진과 사방시설의 계통적 설치를 통한 계류 안정화와 지형 지질 조건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공법을 적극 도입해 시공 완성도를 극대화했다는 평을 받았으며, 집중호우 기간 이전 사업을 조기 완료하여 산림재해 예방 효과가 크고, 생태통로 설치를 통해 생태계 단절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매우 우수하다고 분석했다.

/임실=진종영 기자

### 지역 소식 통

#### 남원시, 예산 운용 평가 우수기관 선정 '2관왕'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자체 전환사업 성과평가'와 '2025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관왕'을 달성하고 인센티브로 1억1천만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성과평가는 재정분권추진방안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일반사업으로 이양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예산편성률과 집행률, 보조율 준수, 우수사례 등을 평가했다.

남원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등 57개 전환사업에 224억원을 편성하여 기존액보다 과감한 투자 확대와 빈집매입 및 리모델링 임대사업이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1억 1천만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재정의 민주성·책임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 구조의 대표성, 주민 참여 수준 및 권한, 홍보·교육 실적 등 7개 평가 지표를 종합 심사하여 선정됐다. 남원시는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운영 강화,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 다양한 계층 참여 확대 등 주민 참여 기회를 폭넓게 마련한 점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남원=김기두 기자

#### 임실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평가 '최우수'

임실군이 6일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평가에서 2025년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우수 지자체 선정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으로, 임실군의 체계적인 정신 건강 정책 추진 성과가 다시 한번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 불안 등 정신 건강 문제를 겪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마음 건강 회복을 지원하는 국가 중점 사업이다.

임실군은 이번 평가에서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연계의 신속성 △바우처 이용률 제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상담 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중심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임실=진종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 임실엔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